

제 253호 · 2014년 4월 23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크림반도 사태가 흑해 연안 항만에 미치는 영향
2. 브라질 항만개발 투자에 200억 달러 소요 예상
3. 시안, 중앙아시아 수출 화물 집산지로 지정될 예정
4. 세바 로지스틱스, 마이애미 외국무역지역 신규 보세창고 운영

물류시장동향

1.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다렌 장싱다오 석유화학단지 계획 공식승인
2. Maersk Line, 동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새로운 직항 서비스 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크림반도 사태가 흑해 연안 항만에 미치는 영향

- 크림반도 사태가 크림반도에 위치한 항만은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작게는 터키에 위치한 항만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크림반도 항만의 통제권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갔으며, 그에 따라 에프파토리아 Ro-Ro 터미널을 통해 이뤄지던 수입 등,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를 연결하는 복합운송망 역시 단절
 - 2013년 크림반도 항만의 처리 물동량은 1천1백6십만톤으로 2012년 1천6백만톤에 비해 27% 감소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처리한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
- 세바스토폴의 Avlita 터미널 프로젝트 매니저인 Andrey Sokolov씨는 Avlita 터미널 물동량의 대부분을 크림반도 외부에 의지하고 있어, 해당 터미널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밝힘
 - 실제 Avlita 터미널 항만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기업인 SCM의 금속수출 물량(2013년 3백 2십만 톤 처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금번 사태로 해당 물량의 감소 예상
- Feodosiya 항에서 러시아 Taman 항으로 가는 유류물동량 역시 감소
 - Feodosiya 항 유류물동량의 대부분은 러시아 Taman 항을 소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합작 투자사인 Tengizchevroil(Chevron 사가 50% 소유)의 물량
 - Tengizchevroil은 이미 Feodosiya 항의 유류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대상 유류항만을 완전히 변경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크림반도의 항만은 건축자재(2013년 40만톤 처리) 같은 소량의 물량만을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세바스토폴에 추진하던 심수항만 개발 역시 취소될 확률 높음
 - 중국 Beijing Interoceanic Canal Investment Management(BICIM)는 우크라이나 기업인 Kievgidroinvest와 파트너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회사가 더 이상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곤란
 - 더욱이 러시아는 이미 크림반도에 있는 기존 항만시설과 Taman 항 프로젝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해당항만 개발에 무관심
- 크림반도의 정치적 긴장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항만 물동량 타격 예상
 - 우크라이나 통화인 그리브나의 환율이 37.5% 급락하여 목재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반대로 수입은 감소

- Sokolov씨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15~30% 정도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
- 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러시아 흑해의 Novorossiysk 항의 물동량은 감소 예상
- 흑해일대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 터키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터키는 우크라이나 수출입 물량의 10%(약 6만 TEU)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30% 정도인 2만 TEU의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4.3.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브라질 항만개발 투자에 200억 달러 소요 예상

- 브라질 항만의 신규 터미널 개발과 기존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한 비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2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행정절차상의 장애요인과 인프라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 브라질 수출입 물류에 연간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 되는 것으로 추정
- 브라질 항만 터미널 연합회의 Wilen Manteli 회장은 브라질의 수출입화물 증가에 따라 터미널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 2014년 화물 처리량은 9억 6천만 톤, 2015년에는 10억 톤의 수출입 화물 처리를 예상하고 있어 터미널 개발이 필요
 - 일례로 브라질 중부에서 생산되는 콩과 옥수수 등은 Santos, Paranaguá, Rio Grande 항만으로의 트럭운송보다 Pará, Maranhão 항만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산업군에 따라 북쪽과 북동쪽 중심의 터미널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제안
 - 이러한 터미널 개발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브라질의 투자 규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
- 금년에 브라질 항만의 터미널 개발 사업 입찰을 개시할 예정이며 현재 남부지역에 LNG터미널 개발을 진행 중
 - 국영기업인 브라질 유류기업 Petroleo Brasileiro SA는 일본의 미쓰이 상사(Mitsui Corp)와 합작하여 LNG 터미널을 Rio Grande do Sul에 건설하기로 MOU를 체결
 - 본 LNG 터미널개발로 남부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원활 해질 것으로 예상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4.4.17.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kmi.re.kr)

□ 시안, 중앙아시아 수출 화물 집산지로 지정될 예정

- 2013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의 무역액은 402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액은 286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 시스템 효율성 강화 필요
 -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무역국으로 성장했으며 2015년 중국-카자흐스탄의 무역액은 4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이에 비해 대다수 물량은 TCR을 이용해 운송되고 있으며 화차부족, 동서간 화물 불균형 등 문제점 존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안국제항무구와 카자흐스탄 국가철도공사는 시안을 중국에서 출발하는 화물 및 국경화물의 집산지로 지정 계획
 - 산시성 시안은 TCR의 중점 거점역이며, 베이징, 청두, 충칭 등 대형 도시들과 철도, 고속도로, 항공, 내하수운으로 연결되어 복합운송이 가능한 물류중심지 및 중공업기지로 대형 제조 기업들이 많아 화물량이 많고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물류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본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이 새로 설립하는 카철쾌속운송공사(哈铁快运公司)에서 운영
 - 시안국제항무구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열차를 매월 2차례 운영하고 카자흐스탄 지역의 복합운송 모델 개발 및 국경 수출입 화물 운송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예정
- 또한 시안국제항무구는 카자흐스탄과 함께 “휘얼귀쓰-동대문(霍尔果斯-东大门)” 경제특구산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완공 후 양국의 물동량 증대 효과 기대
 - 경제특구 내에 물류원구부두를 건설하여 중국 내륙의 화물을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등지로 운송할 계획
 - 이를 위해 산시성 및 중국내륙 관련 기업 및 물류운송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추진

자료 : 시안일보(西安日报), 2014.4.16.

박여진 연구원 (☎ 02-2105-2967, yjp06@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cho@kmi.re.kr)

□ 세바 로지스틱스, 마이애미 외국무역지역 신규 보세창고 운영

- 글로벌 3자물류 기업인 세바 로지스틱스(CEVA Logistics)는 최근 마이애미 외국무역지역(FTZ, Foreign Trade Zone) 보세창고 운영을 개시
 - 세바는 이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달라스-포트워스, 시카고의 외국무역지역 보세창고를 운영 중
- 마이애미 신규 외국무역지역 보세창고는 약 117평의 규모이며, 이 지역의 새로운 물류 허브 역할을 기대
 - 재고관리시스템, 지역할당추적시스템(Zone Lot Tracking System), 선입선출 식별 시스템과 같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승인을 받은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
- 신규 외국무역지역 보세창고는 관세 연기/지연 서비스(duty deferral service)를 제공
 - 수출시 무관세, 항만유지비(HMF, Harbor Maintenance Fee) 및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감면 등 수혜
- 세바 미국 통관중개소의 Brenda Custer-Espeleta 부소장은 “신규 보세창고는 고객들의 수입관세 절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언급
- 또한 신규 외국무역지역 보세창고는 헬스 케어 고객을 위한 의료 및 냉장 유통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자료 : supplychain.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4.9 / www.cevalogistics.com, 2014.4.8.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다렌 장싱다오 석유화학단지 계획 공식승인

-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거시적인 조정·지도 기능을 갖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가 중국 다렌 장싱다오(長興島)의 석유화학기지(총면적 77.1km²) 개발계획을 승인
 - 장싱다오는 중국 랴오둥반도와 다렌 발해만 해안선 중간에 위치하며, 다렌항으로부터 약 85해리, 텐진항과 170해리상에 위치
 - 장싱다오 산업단지(‘장흥도 임항공업원구’) 개발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랴오닝 연해경제 벨트 발전계획’ 및 ‘동북진흥 계획’과 연계, 석유화학공업 외에 장싱다오에 항만물류, 특수 철강업, 대중장비업, 조선업 등 5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
- 금번 개발승인으로 장싱다오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랴오닝성 등 중국 동북 지역의 해륙 운송 일체화 계획이 한층 더 활기를 띠 전망
 - 장싱다오는 다렌항, 잉커우항, 텐진항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양-다렌간 고속도로 및 하얼빈-다렌철도와 인접, 중국 내륙 및 해외 진출이 용이한 교통 요지 상에 위치
 - 중국 당국은 교통물류상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장싱다오 석유화학 공업기지를 싱가포르 위랑, 미국 휴스턴 등과 같은 세계 굴지의 석유화학 공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자료 : www.people.com.cn, 2014.4.21.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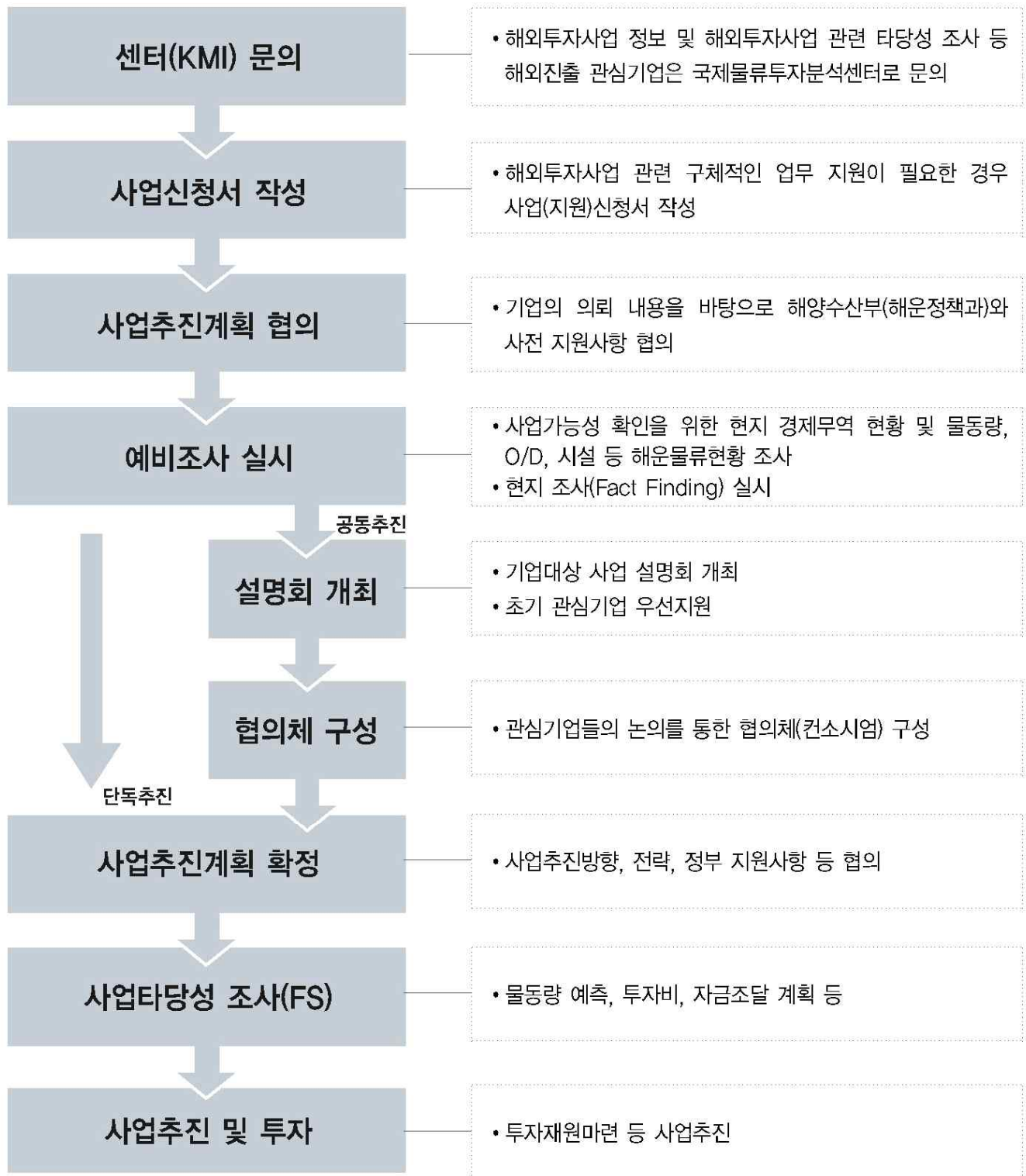
□ Maersk Line, 동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새로운 직항 서비스 개시

- Maersk Line은 동인도네시아 Bitung항과 말레이시아 Tanjung Pelepas항간 직항 해상운송 서비스 개시
 - 신설된 서비스는 Bitung항에서 격주마다 출발하며, Tanjung Pelepas항, Moresby항, Noro항, Lae항 등에 기항
 - 기존에 동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화물은 피더서비스를 통해 자카르타 Tanjung Priok항에서 환적 되었지만, 새로운 직항 서비스를 이용하면 Tanjung Pelepas항까지의 수송일수를 12일에서 7일로 단축 가능
 - Maersk Line 인도네시아의 Jakob Sorensen대표에 따르면 새로운 수송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동인도네시아 수출기업들의 화물처리 효율성이 증가할 전망이며 제품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자료 : www.seatrade-global.com, 2014.4.15.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